

제 13 장

고난을 당하신 우리의 주님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간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히 2 : 9~10, 14~15).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의 주님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되셨으며,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도록 하심입니다. 많은 아들들을 영광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 구원의 대장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히 5 : 7~8).

우리 구원의 대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되셨습니다. 비록 그분이 아드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온전케 되셨고, 그는 자신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온전케 하심”이라는 단어는 “죄없음” 그리고 “도덕적인 완전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온전케 하신”(τέλειος, 텔레이오스)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이러한 의미와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텔레이오스(τέλειος)는 어떤 사물이 만들어져서 성취되어지기 위한 목적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자면, 오크 나무 한 그루는 도토리 텔레이오스입니다. 하나의 도토리는 한 그루의 나무로 자라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나무는 그 도토리의 텔레이오스이며, 그 도토리가 만들어지기 위한 목적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어른은 한 소년의 텔레이오스입니다. 어린 아이가 여전히 소년으로 남아 있다면 그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것은 그의 성장이 방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신 그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여기에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신 주님이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되심”을 기뻐하셨습니다. 그가 아들이라 할지라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기 때문에 그는 텔레이오스를 이루셨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계획하시는 그 목적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는 그 목적, 즉 그 텔레이오스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죄 용서함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시는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습니다.

고난의 날에 오신 우리 주님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신 그 목적(τέλειος)에 대한 장엄한 논의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히 10 : 4).

히브리서의 저자에 의하면 희생제사가 집행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죄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제사들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모든 것을 위하여 단 한번 제사를 드렸을 뿐입니다. 그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 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히 10 : 5, 7).

그는 그의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이는 그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그의 영혼의 고통을 매우 날카롭게 묘사하고 있으며,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날을 위하여 오셨으며, 그날에 주님은 그 고난에 직면했습니다. 그분이 성취하시기 위한 그 목적의 핵심 앞에 서 계실 때에, 즉 그 고난의 임무를 수행하실 때에, 그는

고뇌와 아픔을 맛보시면서 그 일을 끝마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서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받을 침례(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눅 12 : 50).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그 사건은 그로 하여금 전 세상을 위한 죄의 고난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제사로 드려야 하겠다는 긴박한 생각이 들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요 12 : 27).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를 보호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 두 영 더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마 26 : 52~54).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옆에 72,000이나 되는 천사들을 데려다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한다면 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성경의 선포와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

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눅 22 : 42~44).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고난의 임무를 행하실 때
에, 그는 그것을 영혼의 고통을 가지고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예언은 아마도 구약성서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
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예언은 이렇게 말씀합니
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
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죄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10절상, 11절상).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버리기에 충분한 것으로
그의 희생 제사를 열납하셨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혼
의 고통, 즉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의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하신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비
록 독서와 그림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영혼의 고통을 견디어냈는지는 알
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직무를 수행하실 때에, 영혼의 고통
을 치루어 내셨으며, 그것은 우리의 이해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나라에 계셨으며, 그곳은 성스러움이 빛나는 곳입
니다. 그러나 이 땅은 죽음과 질병과 슬픔, 절망, 그리고 눈물로
가득차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떠나서
참으로 어두운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은 엄청나게 크나큰 고뇌
의 결정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그렇게 내려오시

기로 결정하신 이유는 우리가 바로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죽음과 눈물과 슬픔의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을 쓰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경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또 말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히 1:6).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을 향한 예배는 너무나 아름답고, 빛나고, 찬란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맡기신 천사장, 사단까지도 그분을 부러워 할 정도이었습니다. 모든 하늘이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을 보자, 사단의 마음에 교만의 죄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우주를 파괴하는데 앞장을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투로 “헤이, 유대인의 왕이여”라고 모욕을 가할 때에 그 영혼의 고뇌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서 면류관이 그의 머리 위에 씌워지고, 아무 쓸데도 없는 갈대를 취하여 그의 손에 쥐어 주면서 그것을 홀이라고 조롱을 하고, 누구도 입지 않는 두루마기를 그의 등 뒤에 걸쳐 놓고 그에게 모욕을 주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는 노릇입니까? 하늘의 모든 천군과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던 그분이 지금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의 고통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는 그분의 그 고통을 엿볼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은 하늘나라의 빛이며 영광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해나 달이 전혀 필요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의 빛이 그 천국에서 빛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얼굴은 태양의 빛과 같이 그렇게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그들이 그의 얼굴

에 침을 뱉고, 그의 수염을 뽑고, 그들의 손으로 그의 뺨을 때리면서 모욕을 가할 때에, 그 영혼의 고뇌를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영광의 보좌 위에 앉아 계셨던 그 주님의 쓰라린 영혼의 고뇌!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못박히시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형을 집행할 때에, 그들은 죄수에게 말뚝을 박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사형 집행의 방법이었습니다. 죄수에게 말뚝을 박으면, 그 사형수는 즉각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 못을 박아서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그 사형수는 몇시간 내에 아니면 적어도 수일 내에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고난의 목적과 성취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째로, 그는 우리들과 동일하게 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와 하나되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히 2:11, 14, 16~18).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는 첫번째 목적

은 우리들과 동일하게 되려 하심입니다. 오랜 기간의 내 목회 생활을 돌이켜 볼 때에, 나는 인간 삶의 가장 보편적인 사실은 바로 눈물과 슬픔과 고통이라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 삶의 공통 분모는 부요함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 중 많은 사람이 아직도 여전히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공통 분모가 강한 힘과 건강도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중 많은 사람이 아직도 여전히 질병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고통과 슬픔, 그리고 눈물보다 더 인간 삶에 있어서 명백한 공통 분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들에게 그렇게 여러가지로 문제를 야기시키는 눈물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울 때에 우리는 그것을 어린아이들이 유치하게 우는 것이라고 말할 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그 눈물은 어른들 만큼 생생한 것입니다. 상처를 받아서 생기는 상한 마음, 실망감, 아픔 등과 같은 어린아이들의 슬픔도 역시 매우 생생한 것입니다. 십대들의 눈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눈물은 그들이 당했던 어떤 때서운 상처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물도 역시 생생한 것입니다. 성인 남녀의 눈물과는 물론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때때로 내리치는 좌절과 실망과 깨어진 꿈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별의 눈물, 외로움, 늙은 나이, 그리고 죽음 등은 우리 모두를 절망으로 몰고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되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금 면류관을 쓰시고 번쩍이는 다이아몬드 홀을 잡으시고 호화로운 왕궁에서 왕으로 살기 위하여 오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임재 안에서 평안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찬란하게 빛나는 천사들의 대장으로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이해하신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가난한 자로서, 죄인의 친구로서, 온유하신 자로서, 외롭고 굶주리고 목마른 자로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형제로서 발견하게 되는 것

입니다. 그는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비록 그는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순종을 통해서 온유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셨다고(히 5:8~9)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많은 방법을 통해서, 삶의 험난한 섭리 가운데서 참으로 순종함을 배워야 합니다. 욥은 순종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욥 1:21).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욥 2:10).

우리는 구세주의 순종의 마음을 다음의 말씀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고 (요 18:11 하).

주님께서서는 그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동정을 가지신 위대한 대제사장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진술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5~16).

그는 우리 삶의 모든 슬픔과 좌절과 실망 그리고 눈물을 아쉽

니다. 비록 그분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는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 분이 이 세상에 오신 첫번째 목적은 “그가 우리들 중 하나가 되어 우리와 같이 되기 위함입니다”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진술합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서 오신 두번째 이유와 목적 (τέλειος), 그리고 그분의 생애가 성취하신 것은, 히브리서의 저자에 따르면, 우리를 죽음의 속박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 보다 잠간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히 2:9, 15).

우리 모두는 죽음을 두 가지 측면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모든 동물과 함께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싸우거나 죽음을 피해서 그것으로부터 도망할 수 있는 피조물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또다른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죽음 뒤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데서 오는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이 죽음 너머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 그것은 공포감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이 철학화하였던 죽음의 강(River Styx) 너머에 있는 어둠의 길에는 도대체 무엇이 놓여 있으며, 히브리인들이 스올이라고 불렀던 그 그림자 너머에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문을 열면 그곳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속박과 두려움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과 무덤에 대한 그분의 승리로 인하여,

이제 죽음을 체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즉시 그 열려진 문을 통하여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낙원으로 영접하시는 방법입니다. 혈과 육은 천국을 물려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흠으로 만든 이 장막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뵈지도 못하고, 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승리는 죽음이 이제는 단지 천국에 이르는 관문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문들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그 문들은 진주로 만들어졌으며, 진주라는 것은 작은 해산물의 상처와 아픔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죽음은 낙원에 이르는 문이며 천국에 이르는 문이기는 하지만, 그 문은 진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텍사스 오데사에서 복음 전도 대회를 하는 동안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나를 작은 커피숍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목사님과 내가 그 커피숍에 들어서려는데 어떤 맹인이 그 곳으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가 앉은 자리 가까이에 앉게 되었고, 그 목사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저 맹인이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그 사람은 커피를 마시기 전에 큰 소리로 축복을 기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맹인은 기도를 할 때마다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목사님이 그 맹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가 맹인이 되기 전에는 매우 악한 사람이었으나 맹인이 됨으로서 그가 주님께로 나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겪는 모든 슬픔에 대하여 거룩하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 안에서 우리를 위한 아름다운 어떤 것들을 주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픔 안에서 우리를

위한 아름다운 어떤 것들을 주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은 무엇이든 지 간에, 거부하거나 비통해 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겸손함을 배우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품에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무엇과 같습니까? 천국은 더 이상의 죽음과 슬픔과 눈물이 없는 그러한 장소라고 묘사됩니다. 더 이상의 고통과 눈물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전혀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이러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코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이러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를 입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이러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에 직면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이러한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구세주가 우리의 형제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의 풍부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은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은 세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 보다 잠깐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히 2 : 9~10).

여러분의 마음에 이 말씀의 의미가 떠오릅니까? 우리 주님께 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수 많은 무리는 주님의 눈물과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친히 구원하신 무리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모든 순례자의 무리 가운데는 위대한 정신을 가진 어떤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군대는 어떤 장군이나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탈출에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원의 위대하신 구세주와 우리 구원의 대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로마의 승리와 장엄하게 비교한 것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엡 4:8).

사단의 수레바퀴에는 고랑이 채워져 있고, 예수님이 얻으신 성도들과, 예수님이 위하여 죽으신 백성들과 예수님이 구원하신 그 영혼들이 주님과 함께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무리 가운데는, 죄인들과 장님들과 절름발이와 상처 받은 사람들과 슬퍼하던 자와 우는 자와 참회하는 자들이 끼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성도들이야말로 주님께서 친히 그 영광으로 데리고 가실 무리입니다.

어떤 책을 읽는 가운데 나는 내 마음에 깊이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어떤 의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책은 그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단지 그의 장례식만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 글은 그 의사의 장례식 때에 그의 시신을 운반하는 운구 행렬에 60명이 참석하여 그것을 메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운구를 메는 60명은 모두다 그 사랑하는 의사에게 생명의 빛을 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운구를 뒤따르는 사람들이 80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그 사랑하는 의사의 봉사로 인하여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293명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위대한 군인의 장례 행렬이나 정치적인

영웅의 장례 행렬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삶을 많은 사람을 치료하는데 쏟았던 하나님의 사랑의 잊지 못할 봉사를 기리는 장례식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의 모습과 비슷할 것입니다. 이때의 그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시궁창으로부터 건져내신 분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성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건강과 희망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신 그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주님을 따라서 천국에 같이 들어갈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사실을 가리켜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라고 언급합니다.

오, 주님, 당신께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하신 일은 얼마나 놀랍고 귀중한 것입니까!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동정하심으로써, 죽음의 고통이 가져오는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제거해 주시고, 어느 날엔가 우리가 그를 따라서 함께 가게 될 영광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와 함께 천국으로 행진하게 될 것입니다!